

실용음악분야의 교육과 정책 개선안에 대한 제언 -학회의 설립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조승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Suggestion about reform plan of education and policy for a field of popular music -Based on necessity and establishment of academy-

Cho-Seung Hyun

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현재 실용음악분야에서 교육과 정책상에 존재하는 포괄적인 문제점들에 대하여 학회의 설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오늘날 대중음악의 실제적 영역에 대한 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이는 앞으로의 대중음악 발전에 있어서 큰 저해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교육 분야는 수반되는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따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필자의 논문에서는 주요 개선사항으로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첫째로, 교육 분야에서는 교과목, 교육과정, 임용고시 관련 사항, 연구 및 저서의 부족, 사교육 의존현상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주로 다루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상에서의 문제는 최근 화두가 된 바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주로 다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회의 설립 현황, 목적, 필요성, 역할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또한 그를 통해서 대중음악의 발전과 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바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omprehensive problems concerning education and policy in applied music through the foundation of academy. Today, we can receive information that developing popular music of actual domain is arrived at considerable level. However, a theoretical base remains lacking and this continues to impede development. I separated the education to branch and researched intensively because the problems of these are very serious and important matter. I proceeded research by mean of primary improvement that classified into two ways. First is education. I reviewed problems in various subjects, including curriculum, textbook,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and the lack of research and books available. Second is policies. I mainly considered the NCS which is a recent debated topic. Finally, we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a research institute as a solution for these subjects.

In this paper, we propose solu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purpose, as well as the necessities and roles of academy. In conclusion, we propose suggestions for addressing problems associated with current policies and ways of developing popular music.

Keywords : Academy, Education, K-pop, Music History, NCS, Policy, Popular Music, Text Book

*Corresponding Author : Cho-Seung Hyun(Korea Univ.)

Tel: +82-10-2325-9686 email: meducho95@naver.com

Received September 28, 2017

Revised October 19, 2017

Accepted January 5, 2018

Published January 31, 2018

1. 국내 대중음악

1.1 대중음악의 위치

현재 한국대중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 중 k-pop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그 인기도 국내·외에서 널리 떨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대중음악의 발전에 있어서 여러 저해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k-pop은 이전에 슈퍼스타k와 k-pop star, Voice Korea 등 TV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국내 대중음악계의 붐을 일으키며, 함께 발전해오고 있다. 그에 따라 대학의 실용음악과도 입시 열풍이 불고 학원가에서도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했다. 그와 더불어 k-pop과 관련된 학과가 새롭게 개설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증가와 유행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방송 콘텐츠가 수없이 노출되면서 나타난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서울·경기권의 몇몇 유명 대학을 제외하고 지방에 있는 실용음악과는 인원 감축을 겪고 있고 학생들을 직접 찾아나서야 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외에 진출해있는 K-pop에도 영향을 끼쳐 다양한 대책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성장이 멈출 수도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중음악의 특성상 다양한 대중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발전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만 현재와 같은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중음악이 국내외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으로 효과적인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음악가 개인의 개성을 더욱 이끌어 내고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행정절차상에 존재하는 대중음악관련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더 나은 커리큘럼의 생성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만 한다.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연구이지만 이는 대중음악의 기초적 틀을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고 교육체제를 만들 만한 실질적인 연구기관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대중음악

연구 학회 및 협회의 부족에서 찾고 대중음악의 교육 시스템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본 논문을 통해서 제시할 것이다.

1.2 역사

한국대중음악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1907년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발매된 최초의 상업음반을 기점으로 한다. 이는 20세기 대중음악의 역사는 음반이라는 매체의 역사와 함께 진화했다는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1]

국내 실용음악 고등교육의 역사는 1988년 서울예술대학에서 실용음악과가 생긴 이후로부터[2] 시작하여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에 이르기까지 실용음악과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대중음악의 전문화된 교육은 약 30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의 대중음악의 역사는 이제 100년이 넘게 발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6.25전쟁 이전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한국대중음악의 독자적인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했다. 물론 전적으로 대중들의 수요에 의해서 소모되는 음악인만큼 이 시기에도 다양한 시도와 발전이 지속되어왔다. 그리고 광복과 동시에 일본제 레코딩 기술과 자본의 유출로 잠시 기술적인 퇴보를 겪기는 했지만 일제의 제재 없이 한국만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는 시기로써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다시금 정체를 겪었다. 이를 회복시키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에는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하여금 발전과 침체를 반복하다가 2000년대를 전후로 k-pop이 발생하였고 오늘날과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3]

현재 k-pop의 세계화와 대중매체의 발달로 한국대중음악은 크게 성장하는 추세이나, 이러한 급진적인 발전 이면에는 그만큼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굴곡과 수난을 겪으면서도 발전해온 한국대중음악이지만 침체 및 수난기와 같은 정체를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특히 멀지않은 미래에 현재 우리가 정립해가고 있는 역사가 정체기로 인식되어서는 더욱이 안 될 일이다. 필자는 오늘날이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있는 시기이고 대중음악의 위상이 높아져 있는 만큼 기반을 다지고 틀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현재 대중

음악의 장기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연구의 부족과 학문적인 영역의 부채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기관의 설립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2. 교육 정책

2.1 현재의 정책

현재 국내 실용음악은 교과목 문제, 실용음악고등학교 커리큘럼문제, 임용고시와 관련해서 교사들의 실용음악에 대한 이해도 부족 현상, 대학에서의 실용음악 이론 관련 과목 문제, 실용음악관련 연구 및 저서의 부족 문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과서의 부재 등 수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2 문제점

현재의 대중음악교육은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교육에 대한 문제이다.

교육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1.3 현재의 대중음악교육’에서 간략히 설명하였듯이 첫째로는 대중음악학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용음악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용적, 실제적 영역으로만 정착되어 실행되어져왔다. 그에 따라 한국대중음악에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분야의 대중음악은 자리 잡지 못했고, 그 결과 교육체계 기반이 잡혀있지 않다. 다음 설명할 사항들은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들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The table of primary test about Secondary teacher employment exam : Subjects of exam, Time term, Type of Question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ducation 2017

Period	1st Period Pedagogy	2nd Period Major: A	3rd Period Major: B
Field of Questions	Pedagogy	Curriculum Education(25~35%) Subject Content Education(65~75%)	
Examination Hour (minute)	60' (09:00 ~10:00)	90' (10:40 ~12:10)	90' (12:50 ~14:20)

Type of Questions	essay	short-answer question	description	description		essay
Number of Questions	1	8	6	5	2	1
Allot per Question (P:point)	20P	2P	4P	4P	5P	10P
Allot per Period (Point)	20 point	40 point		40 point		

임용고시의 경우 위와 같은 과정으로 1차 필기시험을 치루고 2차 면접을 통하여 교원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필자가 주목해 볼 부분은 2교시와 3교시에 해당하는 전공시험이다. 이 부분에서는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나누어 시험을 본다. 하지만 사실상 전문 음악내용에 해당하는 교과 내용학의 경우에 지난 5개년의 ‘중등교사 신규 임용후보자 선전 경쟁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실용음악과 관련한 문제유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교과 교육학 측면에서 실용기타반주 등의 내용이 교과과정과 학습방법제시의 예시로써 등장한 것에 그쳤다. 이는 중·고등교과서에 존재하는 실용음악내용을 보다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시 될 만하다. 또한 실용음악 관련전공이 개설되어있는 예술고등학교에서도 일반 교원이 음악담당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이 또한 실용음악의 공교육화와 전문화에 있어 큰 오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 사범대학 등의 교육내용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직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실용음악과가 개설되어 있는 국내 30여개 대학 중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교는 단 한 개 대학에 불과하다. 교원대와 사범대의 커리큘럼에서도 임용고시에서의 실용음악과목 문항이 없으므로 전공 필수 상에서의 과목이 없었고 선택과목에 몇몇 공통된 소수과목만이 있었다.[3]

교육제에 대한 부족현상도 심각하다. 저서와 보편적인 교육방편의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대중음악분야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본지침서와 같은 교과서나 교본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위와 같은 모든 상황들은 대중음악교육이 공교육체계하에 존재하지 못하고 사교육 중심으로만 가능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부

예술고등학교에 개설되어있는 실용음악 전공의 교육과 정도 매우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실용음악을 학문으로써 연구하고 저서 집필 및 교과서 수정, 교과과정, 임용고시 및 자격증 설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3. 학회의 설립

3.1 학회 및 협회

대한민국의 대중음악관련 협회 및 학회는 교육 관련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전혀 없다. 현재(2017년 04월 12일 18:57기준)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허가한 비영리 법인은 115개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체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은 4,123개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 허가 비영리 법인 115개중에서 대중음악과 관련된 협회는 ‘한국실용음악작곡가협회’와 ‘(재)한국저작권보호원’ 그리고 ‘(사)저작권해의진흥회’ 3개의 협회밖에 없다. 게다가 이 중 두 협회는 저작권 관련 협회이다. ‘(재)한국저작권보호원’의 경우는 저작권의 포괄적인관리를 맡고 있고 음악관련 주요 저작권 단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실용음악작곡가협회’도 대중음악관련해서 교육 및 연구기능을 하고 있는 학회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허가 비영리법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비록 4,123개나 되는 방대한 수의 협회가 법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지만 이 중 52개의 협회만이 대중음악과 관련성을 지니는 협회라고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대중음악 협회 및 학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학회 설립의 목적과 방안, 연합, 운영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학회 설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명해 볼 것이다.

3.2 설립목적

실용음악학회가 다른 문제점등에 대한 방안보다도 먼저 앞서서 설립되어야만 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순서상의 문제이다. 사교육의 규격화를 위한 실용음악교육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발급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며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대중음악의 공공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실용음악관련 중·고등학교 설립문제와 임용고시의 시험내용 개정안 및 실용음악 전공 음악교사 같은 주요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개인 및 민간 부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용음악 전공의 중·고·대학교에 이르는 커리큘럼 제작이나 수정 그리고 임용고시 시험 내용 수정, 고시 응시 자격 부여의 문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용음악 교육의 경우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교육개편에 있어서 음악교과서의 전면적인 수정작업과 대학 전공교과서의 집필 작업은 장기적이면서도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의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연구 및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다. ‘2.2학회 및 협회’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문체부 산하 총 4,238개의 법인이 있지만 이 중에서 연구를 해줄 수 있는 학문적인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고 교육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협회도 없었다. 이를 통해 예술분야만의 사회 구조와 특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음악인들에게 학문적인 연구의지의 실천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실용음악교육 학회는 아직까지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대중음악의 역사가 반세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분야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실용음악이 그동안 대한민국만의 초석과 기본, 밑바탕을 다져 놓지 않고 즉, 체제와 이론적인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구두로 단편적인 발전 및 계승만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음악계가 한국만의 독자적인 음악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선진국의 음악 형태를 따라가는 모방음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 게다가 이러한 모방음악의 발전 및 추격의 속도가 느려서 계속해서 진보하는 선진국의 음악계를 따라가기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학회 및 국가 산하의 대중음악 연구기관의 설립은 최우선이 되어야 함이 확실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3.3 역할

학회, 교육협회 등의 전문연구기관이 해야 할 역할에는 많은 것이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요 기능 중에서도 크게 4가지 주요사항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교육개혁’이다. 현재 제일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바로 교육제도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교육이 사교육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음악의 영역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대중음악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우선적으로 연구기관이 시행해주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기초 4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대중음악 연구기관의 설립

: 본 논문의 주제인 연구기관의 설립이 우선 교육개혁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연구기관이 있어야만 정책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적용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분야나 정책상의 연구 등은 개인의 차원에서 섬세하게 연구할 수 없는 한계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의 차원에서 연구를 실시해야 다방면에서 효율적이고 연구의 질 또한 다를 것이다.

2) 실용음악교육자격증 과정 개설

: 현재 대중음악은 언급했던 것처럼 사교육 중심의 교육체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교육기관인 학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느 정도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라면 교육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화 이전에 강사 자격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만들어 공급해야 현재의 교육의 질을 더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4]

3) 임용고시 시험과목 개정

: 초·중·고 음악교과는 개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실용음악에 대한 비중이 이전에 비해서 높아진 수준으로 교과가 편성되었다.

Table 2. The proportion of classified genre in music text book for middle school[5]

Rate about classified genre in middle school text book : curriculums from second one to 2009 version (Unit : %)							
Curriculum	Gukak	Classical Music	Multi-Cultural Music	Popular music	Other 1	Other 2	Aggregate
2nd	8.7	82.7	1.9	0.0	1.1	5.6	100
3rd	11.5	79.7	2.1	0.0	0.9	5.9	100
4th	9.0	82.5	1.1	0.0	0.3	6.1	100
5th	14.3	80.0	1.2	0.0	0.1	4.3	100
6th	18.2	75.1	1.4	0.0	1.0	4.3	100
7th	25.5	57.6	3.2	2.4	5.0	6.3	100
2007	24.9	35.3	6.4	8.4	14.6	10.4	100
2009	35.9	38.9	5.9	2.9	4.7	11.9	100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필자가 독자적으로 고등학교 음악교과 10개를 중심으로 분석해본 결과 대중음악에 대한 영역이 상당히 미흡했다. 오로지 가장 영역에 대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과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에도 실용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임용고시의 경우 대중음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웠고 사범대학교나 교원대학교의 경우에도 대중음악관련 커리큘럼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것은 결국 대중음악에 대한 학문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중음악에 대한 전문적이거나 학문적 지식이 전혀 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연구의 부족과 연구기관의 결여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중음악을 하는 음악가들조차도 학문적으로 대하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4) 대중음악의 공교육화 추진

: 위의 3개의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의 최종 산물은 바로 대중음악의 공교육화이다.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 미흡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며 나아가서는 한국대중음악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확보해줄 수단으로써의 공교육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6]

둘째는,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및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타 분야들과는 다른 예체능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면 결국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정책 입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조정하고 합의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정책사항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대표적으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최근 대중음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실시로 인하여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NCS가 그에 해당한다.

NCS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약어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뜻한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라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측은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NCS는 실용음악에의 적용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대중음악분야에서 산업현장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능력중심 채용이나 취직률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자격증 설립도 미비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자격증이 설립되더라도 음악분야의 특성상 기업체나 산업체간의 취업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슬게 업종은 그 학문의 특성상 프리랜서의 개념이 강하다. 관공서나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이나 생산 현장직 근로자와 같은 일반적인 채용형태와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 물론 클래식이나 국악의 경우 대표적으로 시립, 도립 악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또한 비정규 계약직이 대부분이다. 또한 실용음악의 경우 음반 제작사나 엔터테인먼트 등의 회사가 있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일 뿐이며 해당 분야도 한정적이다.[5]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NCS의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 활동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매우 미흡하여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주제와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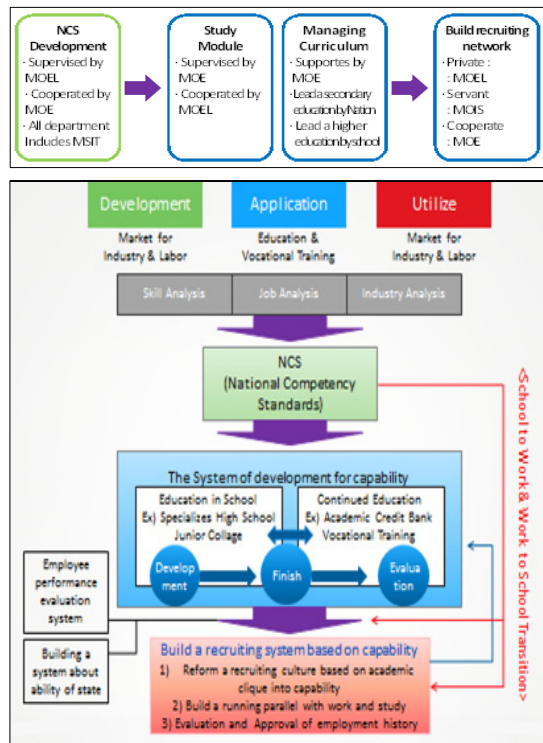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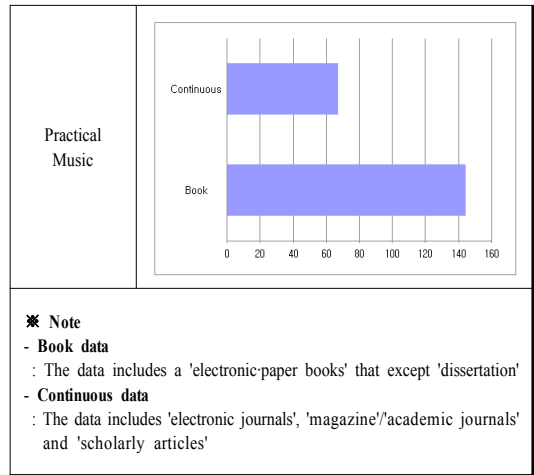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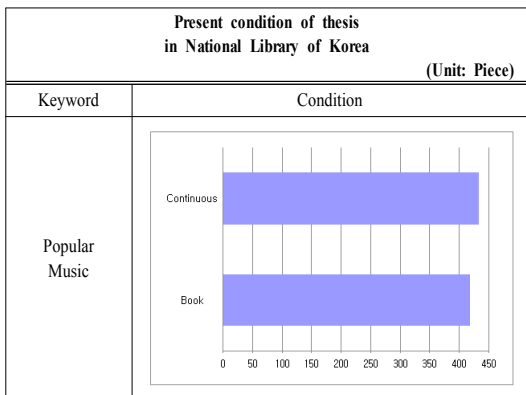
Fig. 1. A System of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bout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Outline of NC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셋째는, ‘지원제도’의 시행이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지원제도는 대중음악관련 경연대회 및 세미나와 같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대중음악 연구자 및 연주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제공 활동을 뜻한다. 이 ‘지원제도’ 안에서 연구자들에게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그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연주자들은 신인 발굴 및 다양한 대중음악 분야의 연주자들을 공식적으로 스폰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중음악계의 발전을 취하고자 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현재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소속사 차원의 오디션을 중심으로 하여 인재 발굴과 신인배출·교육·학습을 겸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의 교육 및 학습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재고해보아야 한다. 수익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획사와 같은 기업에서는 단발적으로 일정 계약기간에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전제하므로 개인

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수지타산적인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회와 협회와 같은 비영리기관으로 하여금 인재 발굴과 교육에 힘써 장기성 인재를 만들고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음악계에서 이처럼 본인이 종사하는 직업계의 후임자 양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단의 역할처럼 경제적인 수익구조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음악적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음악 장르와 분야에 있는 인원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있어 연주를 하고 활동할 발판이 되어주는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양한 실용음악 분야에서의 음악 인재 선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이끌어줌으로써 일률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대중음악계에서 음악적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이는 대중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음악계의 다원화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 대중음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연구’이다. 연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학회 설립의 주 목적이자 활동일 것이다.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듯이 대중음악과 관련된 집필 및 연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표된 연구논문을 예로 살펴보았을 때 대중음악과 실용음악을 주 키워드로 한 논문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필자가 쓰고 있는 교육 분야에 대한 논문은 반드시 필요하고 한국대중음악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쓰였어야 하는 것이 옳다. 또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미 개선되고 시행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모지에 가깝다.

Table 3. Present condition of thesis in National Library of Korea



Line	Title of Keyword	Number
1	Popular Music	573
2	Practical Music	99
3	Entertainment	451
4	Album	745
5	Recording	12
6	Copyright	125
7	Music Education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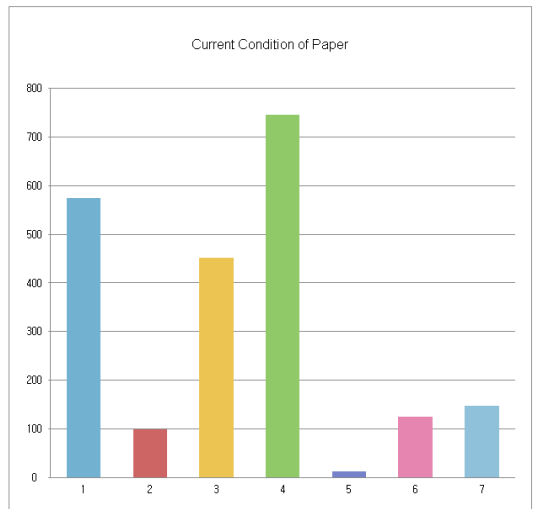


Fig. 2. The Current condition of paper in KISS(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위의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내 최대 논문사이트 중 하나인 KISS(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의 키워드별로 분류한 논문현황을 나타낸 표이

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음악관련 논문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중음악 분야 논문자료에서는 대중음악이 총 852편으로 집계되었고 실용음악의 경우는 211편으로 집계되고 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KISS의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직관적이고 분류를 세분화 시켰는데 현재(2017년 05월 10일 14:08 기준) 총 1,340,461건의 총 논문 편수 중에서 해당 키워드 관련 논문은 2,162건으로 전체에서 약 0.16%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적인 관련정도를 보고 논문의 전체적인 비중과 부족한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여겨서 세분화된 조사는 본 논문에서 단행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논문 수가 아니라 관련 연구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위에서 설명했던 NCS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CS의 대중음악 분야관련 논문 편수가 5편이 되지 않는다. 필자가 조사해 본 결과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단 1편만이 연구 논문자료로써 있을 뿐이었다. 그만큼 대중음악분야 종사자들 중에 학자가 부족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개선하려는 연구 활동역시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음악을 연주하고 분석하는 음악 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예를 들면 필자가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교육, 경제, 국제, 저작권 등처럼 말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대중음악의 학문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점진적인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써의 역할을 지금이라도 학회가 실행하고 실현시켜야만 한다.

4. 결론

필자는 실용음악분야에서의 교육과 정책 개선안에 관한 내용을 학회 및 협회의 설립 필요성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오늘날 대중음악 관련 협회의 수도 매우 부족한 것도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주는 곳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일반 행정 정책이나 특히 교육 정책상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점들의 예시로 필자는 크게 ‘임용고시와 교과목

에 대한 문제’, ‘대중음악 사교육화에 대한 문제’, ‘공교육으로의 교육 방향 전환 문제’, ‘전문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NCS에 관한 문제’등으로 나누어 살펴왔다. 연구의 내용을 대중음악의 포괄적인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대중음악을 가르칠 전문 교원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교과서에서의 내용도 충분치 못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이 사교육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또한 NCS제도는 대중음악 교육에 있어서 예술분야의 특징으로 인해 영향을 끼치기 어렵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대중음악에 대한 이론적 기저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였고 연구가 부족한 상황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고 진행한 결과이다. 연구와 학문적 분야는 개개인의 관심의 영역을 넘어서 전문 예술인으로써의 의무와 책임으로써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중음악연구학회가 필요하고 교수들을 포함한 전문 예술인들은 충분한 연구를 통해 한국대중음악의 학술적발전과 동시에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개발에 힘써야 한다.

Reference

- [1] Joon-Heum Park-Jae-Kyun Choi, Popular music Sound - all around music, Phono, vol. 3, 2011.
- [2] Jung-Sun Lee, The History and Establishment Shapes of Applied music Education in Korean Colleges and Universities, *Society for Pentecostal Studies in Korea* vol. 38, pp. 20-21, 2000
- [3] Yu-Jung Chang-Byeong-Gi Seo, The introduction of k-pop history, sungandang, 2015.
- [4] Seung-Hyun Cho, A Study about necessity for training educator of popular music-Concentrating on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and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2,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2.383>
- [5] Si-Hyun Kyung, Analysis of junior highschool music textbook according to national curriculums concentrate on activities of cre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vol. 13, no. 4, 2015.
- [6] Seung-Hyun Cho, Long term solution for K-POP globalization-Concentrating to the change in education system-,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418>

- [7] Seung-Hyun Cho, A Study about necessity for academic research institute in popular music,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
- [8] Eun-mi Kang, Tae-seon Cho, A study on the Improvisation for Jazz Vocal - Pratices and analysis using root position in chord and chord tones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5. no. 6 pp. 377-383, 2017
- [9] Jin-seok Kong, Tae-seon Cho Discussion of the Succes of Motown records Company,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5, no. 6, pp. 439-445, 2017.

조 승 현(Seung-Hyun Cho)

[준회원]



- 2013년 7월 : 2013 충남교향악단 유망신인 협주곡의 밥 협연
- 2013년 7월 : 제 26회 국제학생콩쿠르 1등 수상
- 2014년 11월 : 2014추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KAIS
- 2014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재학

<관심분야>

Economics, Education, K-pop, Music Business, Vocal